

전치부 개방교합은 교정치료 전이나 치료 중간에 흔히 발생하여 치료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장이 끝난 성인 환자에서 상악전돌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심미적인 문제 때문에 더욱 곤란하게 된다.

본 증례에서는 치료도중 상·하악의 악간 고무줄의 사용으로 상악전치부가 정출되어서 gummy smile을 나타내게 되어 이 부분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Tweed-Merrifield의 Edgewise Sequential Directional Force Technique을 적용하여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치료기간 동안 FMA의 유지 혹은 감소, Facial Height Index의 유지 혹은 증가, 안모의 개선 등에 유의하였다.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을 가진 경우 환자가 좋은 안모를 가지고 있을 때는 overjet과 overbite가 크다고 하더라도 선뜻 발치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울 때가 있다. 또, 하악이 후방위치된 2급 부정교합이지만 이미 영구치열이 완성된 경우 orthopedic treatment를 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단순한 치아이동 만으로 안모의 개선도 이루어 치료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안모와 골격부조화 개선을 함께 얻을 수 있으며 치료기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Herbst appliance를 사용할 수 있다.

80년대 초반부터 Pancherz를 비롯한 많은 임상가들이 Herbst appliance의 치료 효과를 입증해 왔으며 본 병원에서도 수년 전부터 영구치열이 완성된 adolescent, 혹은 성장이 거의 완료된 young adult를 대상으로 Herbst appliance를 사용하여 왔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내에 안모의 개선과 좋은 교합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Herbst treatment가 심미적인 문제에서, 치료진행 mechanic 상에서 골격성 2급 부정교합 치료에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 치료 증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정치료의 목적은 악골, 치아, 그리고 주위 연조직을 균형있고 안정된 위치로 유도하여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교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교정적 치료 방법에 관하여 교정의들 사이에 많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정치료시 발치 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발치, 비발치의 결정은 이용 가능한 진단 자료의 분석과 함께 환자에 대한 임상적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교정의들이 자주 이용하는 발치 기준으로는 연조직 측모, 치열궁 길이 부조화, 절치 경사도, 치주상태, 치열궁 확장시 교합 안정성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교정의의 경험과 심미적 기준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골격 구조에 가장 적합한 위치로 치열을 배열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치로 치열이 배열되어

야만 교정치료 후 최대의 기능과 심미성, 그리고 치료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 골격 구조가 모든 치아를 수용할 수 없다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발치를 고려해야 하지만, 골격 구조가 모든 치아를 수용할 정도로 충분하다면 비발치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치료시 발치에 대한 어떤 정해진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발치 결정은 각 증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광범위한 고찰을 바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의 골격 형태나 치열 형태, 안모뿐 아니라 기능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충분한 골격 구조를 가진 환자에서 비발치로 총생을 해결하면서 양호한 심미성과 기능을 달성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T-14
TABLE
CLINIC

Finishing & Detailing Chart의 활용
지대경 · 임용규 · 이동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교정과

교정의들에게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retention을 시작하는 시기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finishing과 detailing 과정을 통해 esthetics, functional occlusion, periodontal health & root alignment, stability 등에 대한 요소를 만족시킴으로써 결정된다.

따라서 finishing과 detailing 시기에 교정환자에 대한 교합의 평가를 정량화 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치료과정을 보다 체계화시킬 수 있다.

Finishing & Detailing Chart는 교정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final checklist로써 finishing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제에서는 finishing과 detailing시 필요한 고려사항들이 포함된 Finishing & Detailing Chart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정치료가 종료된 환자들의 B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T-15
TABLE
CLINIC

상악 견치 매복을 동반한 제I급 부정교합의 치험예
이재준 · 김은정 · 박희창 · 황현식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상악 견치 매복은 교정환자의 2%에 해당되며 구개축 매복이 순축에 비해 약 2배 정도 흔하다. 이러한 매복 견치는 인접치 치근의 파괴, cyst형성 등과 같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매복 견치를 외과적으로 노출하고 다른 치아를 anchorage로 사용하여 교정적으로 치아를 치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본 증례는 상악 우측 견치의 구개축 매복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 환자로서 인접 축절치의 peg lateralis, 상악 치열 정중선의 우측 편위와 좌측 II급 구치관계를 보였다. 정중선 편위와 crowding 해결을 위해 제1소구치 발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우측 축절치의 보철적 수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우측의 경우 제1소구치 대신 peg lateralis를 발거하고 견치를 축절치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016 archwire상에서 open coil을 사용하여 매복 견치가 나을 적절한 공간을 형성한 후 외과적으로 노출시켜 button을 부착하고 구강내로 견인하였다. 016×022 bull loop archwire를 이용하여 space closure를 하였으며 견치를 축절치로 reshaping하기 위해 incisal과 lingual surface를 grinding하여 심미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